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는 사드 작품의 몇 가지 특성

정 해 수
(목원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원래 선행 논문 「사드 연구 50년」의 일부인이었으나, 분리하여 수정하고 논문형식을 갖춰 제출되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비평가들은 밝히기를 꺼려하지만 사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특성을 고찰하려고 했다. 즉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음성(polyphony), 등장인물들의 모순된 철학적 담론 그리고 후작의 작품은 상황적 텍스트라는 사실 등을 말한다. 오랫동안 사드 연구는 위의 몇 가지 특성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져왔다. 특히 전문 비평가 그룹은 자신들의 이론적 정당성을 위해 사드 작품의 일부만을 취하여 이용해왔다. 그 결과 사드의 작품은 판독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 1990년 이후의 연구자들은 사드와 그의 등장인물을 동일시하는 관행을 거부하고 정확한 자료와 역사적이고 사상사적 맥락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학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킨 이들의 연구는 앞으로 사드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주제어 : 18세기 프랑스문학, 사드, 사드작품의 다음성, 사드적 모순, 상황적 텍스트, 사드적 중의성

I. 서론

아폴리네르, 아라공 등과 같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사드의 작품에서 혁명적 미학을 발견하고 확산한 이래 지금까지 사드처럼 지식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작가도 드물며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진부한 조망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¹⁾ 인간을 탐구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 사드가 작금의 지식 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마당에 굳이 이에 대해 다시 논한다는 것은 동어반복일 뿐이며, 처음과 끝을 가늠할 수도 없는 난감한 일이기 때문이다. 에릭 마르티도 20세기 전체에 걸쳐 시대의 지성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이 왜 사드에 그렇게 집착하고 심각하게 다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저작을 세심하게 분석했지만 사드 전문가들의 주장을 통해서 자신의 저서 제목 “왜 20세기는 사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했다. 즉 아도르노, 클로소프스키, 바타이유, 블랑쇼, 푸코, 라캉, 들뢰즈, 솔레르스, 바르트, 파솔리니, 레비나스 등이 해석한 사드의 사상을 모두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는 자신의 책 제목에 ‘현대성’ 때문이라는 모호한 답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의 사드 전문가들이 사드의 현대성을 성취수나 장정일이 잘 요약한 것처럼 “독보적 상상력이 펼쳐 보인 전인미답의 세계가 인간의 가장 심오하면서 치명적인 영역의 비밀들을 폭로하고”²⁾ 있는 것, 또는 ‘가장 자유롭게 욕망할 때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교의’에 있는 것³⁾ 등으로 뭉뚱그려 정의한다면 우리와 같은 연구자들은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 사드에 대한 진실은 ‘현대성’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가 현대적이라고 하자, 그래서?”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드에 대한 진실은 ‘현대성’이라는 말로 환원하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일

-
- 1) 우리는 1966년 사드 전문 비평가 그룹과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콜로키움을 개최한 이후 사드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많은 영역에서 후작의 작품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정해수, 「사드 연구 50년」,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00집, 2017 참조. 한편 이 글은 2017년 9월 16일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 71차 연구발표회에서 소개되었고, 상기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일부였음을 밝힌다.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분량이 너무 많고 일부를 분리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한 심사자의 고견을 받아들여 글의 큰 줄기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논문의 형식을 갖춰 투고한다.
 - 2) 사드, 『사드 전집 I - 사제와 죽어가는 자의 대화』, 성귀수 옮김, 워크룸 프레스, 2014, 8쪽. 성귀수는 작품의 해설 역할을 하는 「사드와 글쓰기」에서 짧지만 매우 정확하게 사드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작가에 대한 연구현황을 기술했다.
 - 3) 『시사N』, 2015년 02월 11일 수요일 제386호.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2403> (검색일: 2018.02.08)

이며 사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사드와 관련한 다양한 기초 자료집, 서간집 그리고 풍부하고 정확한 주석을 포함한 플레이어드판 작품집이 속속 발간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사드의 모습과 생각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신화화된 후작의 이미지와 사상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셸 들롱을 비롯하여, 정해수, 옹프레, 브릭스, 장젠 빌메르 등과 같은 학자들은 사드가 그의 등장인물들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사드는 이미 신화·화석화되어 그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드 연구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신화화된 사드가 확대 해석되어 후작의 본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상체계가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 구축된 사드의 사상체계가 마치 사드에 대한 진실인양 호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사드의 개인적 삶을 그가 창조한 등장인물들의 혁명적 사상, 독특한 철학적 체계, 사디즘, 포르노그래피 등과 혼동하여 사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사드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다양한 1차 자료들에 근거한 연구가 선행될 때라야 가능하며 이 글은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과 전문 비평가들이 사드 작품의 몇 가지 특징을 애써 간과한 결과 사드에 대한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려는 한편 사드와 그의 작품이 지니는 진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려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I. 비정상적 서사성의 원인

문학적인 측면에서 사드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인 시학이 무시되곤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반적인 소설가들의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사드의 등장인물들에게는 픽션의 필수 요소인 심리가 없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과거도 없고 그들의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며 지속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⁴⁾ 모든 등장인물은 “소설에 느닷없

이 등장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마치고 사라지는데 다시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⁵⁾ 『알린느와 발쿠르』의 두 주인공, 돌망썰, 생탕주, 쥐스틴과 쥘리에트 등에게 일반적인 등장인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역할에 알맞은 최소한의 성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성격도 소설 전개를 위한 설정일 뿐이고 그들에게서 심리적 흐름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⁶⁾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서사성은 두 가지 점에 기인한다. 먼저 소설작품으로 잘 알려진 사드가 매우 다양한 문학 장르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콩트와 소설에만 능하지 않았다. 사드가 다수의 희곡(비극과 희극), 철학적 대화(*Dialogue entre un prêtre et un moribond*), 도덕적 콩트(*Les Infortunes de la vertu*), 피카레스크 소설(*Juliette ou les Prospérités du vice*), 천일야화식 콩트(*Les Cent Vingt Journées de Sodome*), 서간체 소설(*Aline et Valcour*), 비극적 단편(*Les Crimes de l'amour*) 등을 썼던 것처럼⁷⁾ 그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 장르를 달리하는 문학적 재능을 지녔다. 게다가 후작의 각 작품은 한 장르의 특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여러 장르의 요소들을 결합한 형식을 취했다. 이런 이유로 사드의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장르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⁸⁾ 서간 소설인 『알린느와 발쿠르』를 예로 들면 작품 곳곳에 수시로 희곡의 요소인 해설, 대사, 지시문 등이 삽입되어 있으며, 소설 속의 소설인 콩트, 단편, 게다가 철학적 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스토리는 주 스토리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작품에서도 알린느

4) 에나프는 리베르탱 등장인물의 소설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 “Exempté de la reptation, [le libertin] naît avec et dans le discours. Il est sans mémoire, sans passé(le personnage sadien n’a jamais d’enfance). Pour lui tout va tout de suite très vite : né adulte, sans préjugés, sans culpabilité, sans (Édipe, sans sur-moi. Pour notre demande d’épaisseur historique et psychologique, c’est mince, c’est pelliculaire.” Marcel Hénaff, Sade, *L’Invention du corps libertin*, PUF, 1978, p.53.

5) 정해수, 「사드의 철학적 담론과 야심」, 『프랑스문화연구』 제3집, 1999, p.253.

6) 바로 이런 점에서 사드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거나 사드의 작품을 통해 사드의 사상체계를 세우려는 시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Jean M. Goulemot, “Introduction”, *Aline et Valcour*, coll. Livre de Poch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4, p.6.

8) *Ibid.*

와 발쿠르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다보면 작품의 포커스는 오히려 작품에 삽입되어 부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나 작품 전체 분량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레오노르와 생빌의 이야기』에 집중된다. 이렇게 볼 때 사드는 일반적인 작품에서와는 달리 주인공만을 묘사하는데 작품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사드의 주인공들은 다른 등장인물들과 같이 역할만 부여 받았을 뿐 주인공으로서의 성격도 심리도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⁹⁾ 주인공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상실된 것이다.

비정상적인 서사성의 두 번째 원인은 위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즉 사드의 등장인물들이 역할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이유는 사드의 작품이 바흐친이 말하는 이른바 ‘다성적’ 소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중 인물, 특히 주인공의 경우 작가가 자신의 이데올로기, 또는 자신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매개로 이용되었고, 또 독자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어왔다. 그런데 사드의 작품에서 이러한 경우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바흐친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게¹⁰⁾ 사드는 자신이 창조한 등장인물들에게 작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작중 현실에서 언제나 제 삼자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사드의 등장인물에게 성격이나 심리적 흐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김옥동의 비유는 사드 작품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인 ‘다음성’의 이해를 위해 인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성적 문학의 세계에서는 (...) 작가(태양)는 중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작중인물들(행성)에게 자리를 양보한 채 그들과 서로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렇게 다성적 문학의 우주에서는 작가는 작중인물

-
- 9) 미완성인 *Les Cent vingt Journées de Sodome*의 후반부에 등장인물은 이름이 아닌 A, B 등으로 인물을 표시한 것은 이에 대한 예가 된다.
- 10)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 “L’auteur n’est ni dans le langage du narrateur, ni dans le langage littéraire “normal” auquel est corrélaté le récit (...), mais il recourt aux deux langages pour ne pas remettre entièrement ses intentions à aucun des deux. Il se sert, à tout moment de son oeuvre, de cette interpellation, de ce dialogue des langages, afin de rester, sur le plan linguistique, comme neutre, comme “troisième homme” dans la dispute des deux autres.” Mikhaïl Bakhtine,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1975), traduit du russe par Daria Olivier, Gallimard, coll. Tel, 1978, p.135.

들과 함께 공존하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과 함께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¹¹⁾

물론 사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적 소설 분석에서 바흐친이 주장한 것처럼 작품의 주인공을 저자와 동등하게 독립된 “인격체”로¹²⁾ 여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다성적 소설에서 작가 고유의 음성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독자에게 송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사드는 작가의 역할이란 담론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발화하는 주체를 플롯에 맞춰 배열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800년 출판된 『사랑이라는 죄악*Les Crimes de l'amour*』에 대해 빌르테르크라는 잡지사 기자가 혹평했을 때 이에 대한 반박문으로 쓴 글에서 사드는 이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식한 척하는 빌르테르크가 부연하기를, 내가 서문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등장인물들에게 이야기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나 가증스럽게 무식한 자 같으니라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기를. 즉 극작품의 각 등장인물은 자신이 가진 성격에 어울리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는 주체는 작가가 아니라 등장인물이다. 이런 경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극중 역할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이 등장인물은 저자 자신이 말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것을 이야기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¹³⁾

사드가 쓴 글이므로 작품에 쓰여진 모든 담론을 사드 고유의 사상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은 애써 무시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후작은 여기에서 자신이 창조한 등장인물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은 별개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창조된 것이지 사드 자신의 철학을 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11)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172쪽.

12) 위의 책, 171쪽.

13) 정해수, 「Dialogue entre un prêtre et un moribon에 나타난 사드의 글쓰기의 始原 : 대화인가 투쟁인가?」, 『프랑스문화연구』 제1집, 1997, p.198에서 재인용. 원전은 Sade, *L'auteur des Crimes de l'amour à Villeterque folliculaire*(An IX), *Oeuvres Complètes*, t.X, Cercles du livre précieux, 1966, p.513.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드가 이 글을 통해 문학텍스트의 유통과정에서 저자가 배제되는, 즉 바르트의 표현처럼 ‘저자의 죽음’을¹⁴⁾ 역설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의 작품에서 저자는 부재중인 것처럼 존재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 독자에게 정확한 독서법을 알려주곤 한다. 때로는 화자로 등장하여¹⁵⁾ 때로는 주석을¹⁶⁾ 통해 사드는 독자가 독서의 방향을 잃거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등장하여 자신의 음성을 드러내곤 한 것이다. 비유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고다르의 영화 <네 멋대로 해라>에서 영화가 진행되는 도중 느닷없이 장 폴 벨몽도가 관객 또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른바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또는 “소외효과”를 노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사드가 동시대 작가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사망 직전까지도 연극을 탐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⁷⁾ 연극의 속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14) 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2.

15) *Les Infortunes de la vertu*와 *Les Cent vingt Journées de Sodome*의 화자가 대표적이다.

16) 서간 소설인 *Aline et Valcour*에서는 화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주석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노출했다. 많은 주석들 가운데 생빌(Sainville)이 부투아(Butua)왕국에 머물며 블라몽과 유사한 철학을 가진 사르미엔토(Sarmiento)가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순간, 이를 놓치지 않고 주석을 달아 저자가 개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 “사르미엔토가 이전에 말했던 바와는 달리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대목은 아마도 여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또한 보게 될 것이기도 한데, 그는 평등 지지론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논쟁에 약한 사람과 사상적 체계를 논할 때, 하나의 체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누군가의 원칙을 왜곡해야 할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자신이 가진 도덕 관념 또는 견해를 말할 때 상대방을 보다 더 확실히 납득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포르투갈 출신인 사르미엔토의 경우임은 물론이다.” 정해수, 앞의 논문 「싸드의 철학적 담론과 야심」, p.264에서 인용문을 재인용함.

17) 1771년 후작은 라코스트 영지에 몇 달간 자신만을 위한 극단을 초창했고,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자 원고를 들고 코메디 프랑세즈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며, 샤랑통 정신병원에 재수감되어도 극단을 결성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라코스트에서의 극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Jean-Jacques Pauvert, *Sade vivant I*, Laffont, 1986, Deuxième partie, 29, Les souliers roses, pp. 243-252 참조. 샤랑통 정신병원에서의 극단활동에 대해서는 Maurice Lever, *Sade*, Fayard, 1991, Seconde Partie, Chapitre XXVI, pp.585-618 참조.

알고 있었던 그는 “배우이자 극작가로서, 무대 위에 있던 무대 아래에 있던 뭔가의 배역을 연기하려는 성향으로 유명했다”.¹⁸⁾ 이런 후작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기초한 전통극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통극의 틀에서 후작은 극중 등장인물과 관객이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었을까? 사드는 불행히도 연극에서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고유의 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희곡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소설에서 등장인물과 독자(관객) 간의 감정적 교류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앞서 언급한 화자와 주석을 통해, 그리고 책머리의 일러두기를 통해 사드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하지 않도록, 또한 주인공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입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드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학의 파괴 배경에는 사드 고유의 거리두기 또는 ‘소격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드가 자신의 등장인물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사상을 불어넣었으므로 작중인물의 사상은 저자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사드 연구를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드식의 ‘소격효과’를 간과하고 진행하는 연구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소설 작품의 ‘연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이후의 연구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브레히트보다 훨씬 오래 전 ‘낯설게 하기’ 기법을 적용하여 작품을 집필했으나 동시대 사람들은 물론 지금의 독자들까지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Ⅲ. 모순된 철학적 담론

사드 작품의 두 번째 특성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품에서 하나의 체계를 일관적으로 구축하는 것과는 달리 사드는 등장인물들의 철학적 담론을 모두 모순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드의 철학적 담론은 모순이기 때문에 사드의 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

18) 존 필립스, 『How to read 사드』, 김병화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8, 29쪽.

해왔다. 『어느 사제와 죽어가는 자의 대화 *Dialogue entre un prêtre et un moribond*』의 죽어가는 자, 『미덕의 불운 *Les Infortunes de la vertu*』의 브레삭(Bressac), 『소돔에서의 120일 *Les Cent-vingt Journées de Sodome*』의 블랑지스(Blangis) 공작, 『알린느와 발쿠르 *Aline et Valcour*』의 블라몽(Blamont), 『밀실에서나 하는 철학 *La Philosophie dans le boudoir*』의 돌망세(Dolmancé) 까지 작품의 주인공 모두 그럴듯한 철학적 담론을 발화하고 있으나 앞의 각 주 16)의 사르미엔토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의 연속일 뿐이다. 또한 이들 모두를 비롯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자유사상가들은 서로 비슷한 사상, 즉 무신론, 유물론적 자연관, 경험론, 감각론 등 언뜻 보면 계몽사상과 유사한 내용을 설파하고 있으나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종종 반대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덕의 불운』에서 뒤아르팽(Du Harpin)과 뒤브와(Dubois)는 인간은 평등해야 하지만 엄연히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절도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달빌(Dalville)의 경우에는 인간은 애초에 불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¹⁹⁾ 등장인물들은 서로 유사한 주장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 갑자기 담론의 내용을 바꿔 발화하는 것이다.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자유사상가들은 대부분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난봉꾼이고 방탕아라는 점이다.²⁰⁾ 많은 독자들이 사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자유사상가와 방탕아의 희한한 결합이리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자유사상가 등장인물들의 끊임없는 철학적 장광설에 매료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겨운 행위들에도 어떤 철학적, 미학적 의미를 부여해가며 미화해왔다. 그들이 사드를 미화한 내용을 요약하면 방탕아 등장인물들은 작가의 철학적 대변인

19) “[La nature] créa dans l’origine des êtres forts et des êtres faibles, son intention fut que ceux-ci fussent toujours subordonnés aux autres comme agneau l’est toujours au lion, comme l’insecte l’est à l’éléphant; l’adresse et l’intelligence de l’homme varièrent la position des individus; ce ne fut plus la force physique qui détermina le rang, ce fut celle qu’il acquit par ses richesses”, SADE, *Les Infortunes de la vertu, Oeuvres de Sade II*, éd. Michel Delon, Gallimard, 1995, p.91.

20) 여기에서 작품에 갑자기 등장하여 몇몇 철학적 내용을 설파하다 사라지는 뒤아르팽, 뒤부아 등과 같은 등장인물은 제외해야 한다.

인 만큼 사드는 모든 방식의 욕망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부르짖는 절대자유 의 화신이며 성을 통해 기존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의 전복을 주장한 혁명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드 관련 연구가 이러한 가설과 편견에서 출발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과연 사드는 자유사상가/방탕아 주인공들을 통해 절대자유와 혁명을 주장했을까? 『소돔에서의 120일』의 블랑시스 공작에 대한 화자의 빈정거림은 그의 방탕함과 악행은 철학의 소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

“바로 이런 종류의 억지 추론으로 공작은 자신의 모든 기벽을 정당화해 왔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논지는 단호해 보였다. 자신이 가진 철학의 틀에 꼭 맞추어 행동하면서 공작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미 더없이 수치스럽고 황당무계한 것거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해왔던 것이다.”²¹⁾

이 인용문을 읽고 블랑시스 공작의 모든 악행의 원인이 어린 시절 형성된 사상이라는 것을 모를 독자는 없으며, 바로 이런 블랑시스의 철학과 악행을 경계하고자 함이 후작의 글쓰기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 비평가들은 등장인물들의 철학과 그들의 악행 사이에 마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복잡한 실타래 풀 듯 억측으로 사드의 글쓰기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드의 세계를 구축해놓은 것이다. 위의 인용문과 유사하게 철학자 등장인물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거리두기(distanciation)’ 기법은 사드의 작품 전체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사드는 『알린느와 발쿠르』의 《일러두기》를 통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등장인물이 “방종과 무신앙에 기인한 억지 이론”을 가지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등장인물의 원칙은 그들의 인상착의가 그러하듯 대조적일 수 있는데, 이 원칙에서 도가 지나친 것을 조명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으로 그리고

21) 정해수, 앞의 논문 「*Dialogue entre un prêtre et un moribond*에 나타난 사드의 글쓰기의 始原 : 대화인가 투쟁인가?」, 197쪽에서 재인용.

동시에 어떠한 능란함으로 미덕의 언어가 항상 방종과 무신앙에 기인한 억지 이론을 깨부수는데 보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 죄악이 되는 몇몇 구절이 있더라도 이의 신봉자들에 대해서만 염려하면 될 것이고, 악이 승리하더라도 미덕에는 끔찍한 일이 될 뿐이다. 즉 뉘앙스를 완화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다. 크레비용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결국 올바른 모든 사람이 글을 쓸 때 제시해야 할 윤리적 목적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²²⁾

연구자들은 애써 외면한 사실이지만 사드는 자신의 등장인물에 대해 어김없이 이러한 거리두기를 견지했으며 언제나 빈정거림으로 일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자를 통해 또는 주석을 통해 저자는 수시로 개입하여 등장인물의 철학은 모순이며 작가와 등장인물의 철학은 별개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환기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자유사상가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론적 틀에 따라 악행을 저지르고 모든 종류의 방탕을 실천하는 것을 작가 사드가 진정 원했던 것일까? 《일러두기》에서 읽을 수 있는 사드의 의도는 자유사상가/방탕아를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등장인물들의 장황한 이론과 상상조차하기 싫은 기이한 열정의 실천은 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철학의 모순과 위험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IV. 상황적 텍스트

사드 작품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드 스스로 작품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과 굴곡진 삶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위장했다는 점에 있다. 그의 인생은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778년 뱅센느감옥 수감 전 과 후, 1790년 샤랑통 출감 이후를 말한다. 뱅센느 감옥에 수감되기 전 사드는 연극에 심취한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많은 동시대 귀족 자제들처럼 방탕하고 거침

22) 정해수, 앞의 논문 「사드의 철학적 담론과 야심」, 262쪽에서 재인용.

없는 삶을 누렸다. 정도를 넘어서는 범죄여서 벵센느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수감 전력까지 있었다. 신성모독, 동성애, 새디즘, 최음제, 또는 집단 성교로 점철된 잔느 테스타르, 로즈 켈레, 마르세이유 사건 등을 일으켜 범죄자로 체포되어 투옥과 탈옥을 반복했고, 유명 여배우와의 스캔들, 처제의 불륜 등을 저질러 고위 귀족자제 출신 난봉꾼으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이유로 종종 사드는 자신이 창조한 방탕아 등장인물들과 동일시되곤 했다.

방탕했던 그의 삶이 1778년 벵센느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내에게 자위도구를 정교하게 맞춰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곤 했다. 그러나 벵센느 수감 이후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그는 집필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쓴 온전한 작가였다. 창작에 필요한 많은 분량의 펜, 종이, 특히 남편이 원하는 각종 서적을 후작부인은 벵센느와 바스티유에 수시로 공급해야 했다. 사드의 독서량은 엄청났다. 그의 수감기간 동안 후작부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확인된 서적의 제목만 279종이었다.²³⁾ 많은 경우 한 제목은 여러 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렵잡아 800여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편지에 나타나지 않은 책까지 합친다면 천 권이 훨씬 넘을 것이다. 감옥의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량의 책을 반입하여 읽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사드가 주문하여 읽은 책은 수감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독서용이 아니었다. 감옥에서 그가 했던 일이라곤 독서와 집필 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의 독서계획이 집필을 위해 기획되었고 집필하는 작품 내용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아내에게 책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²⁴⁾ 그의 독서 내용을 보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즉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로 알려진 후작이 돌바크와 루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베르지에(Bergier) 사제의 저작, 볼테르를 비판하는 논노트

23) Haisoo Chung, *Philosophie et littérature chez Sade du Dialogue à Aline et Valcour*, thèse Univ. de Tours, 1997, "Chapitre I Lecture de Sade et remarques(pp.20-54)"

24) 1779년 3월 또는 4월 경 자신의 아내에게 책을 독촉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 "Que veux-tu qu'on fasse sans livres?" *Correspondance des Oeuvres Complètes du marquis de Sade*, t. XII, Cercle du Livre précieux, 1966-1967, p.197.

(Claude-Adrien Nonnotte)의 저작 등 계몽철학을 격하하는 서적, 그리고 플레시에(Fléchier)와 마씨용(Massillon)의 설교집까지 의외의 독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재미있지 않은가? 평소 철학자임을 자임했던 사드가 동시대 최고의 호교론 이론가인 베르지에의 저작을²⁵⁾ 탐독하고 마씨용의 설교집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²⁶⁾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느껴지는 사드의 독서는 『알린느와 발쿠르』를 읽어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 소설은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삼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소설의 부제 “철학 소설(roman philosophique)”이 암시하듯이 소설은 알린느와 발쿠르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된 철학자/리베르탱 그룹과 감성적 등장인물들 간의 이념적 갈등과 투쟁을 다루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레오노르와 생빌이 모험여행을 하는 가운데 접한 다양한 주제와 세계관, 즉 무신론, 유물론, 기독교, 이신론, 마니교, 유토피아, 감성주의 등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드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분명하다. 그는 작품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판단의 몫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후작의 일관되지 않았던 독서행위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 않은가?

사드 일생의 마지막 변곡점은 - 당시 모든 프랑스인에 해당된 일이기도 하지만 -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대혁명 직전 사랑통 정신병원으로 이감되었다가 1790년 4월 석방된 이후 사드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또 다시 수감생활을 반복했다.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Justine*

25) 신학자로서 베르지에 사제(Nicolas-Sylvestre Bergier)는 호교론에 관한 많은 저작을 써서 당대의 호교론자로 추앙을 받았다. 그는 특히 루소의 사상을 비판한 *Le Désisme réfuté par lui-même*(1765), 돌바크의 저작을 비판한 *Réfutation du système de la nature(de d'Holbach) ou Examen du Matérialisme*(1771)을 써서 계몽철학의 모순과 철학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철학적으로 밝혀 당시 지식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6) 1781년 3월 28일경 아내에게 보낸 사드의 편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드는 자신의 생각은 마씨용의 사상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있다 : “Mon Dieu, ma chère amie, que j'aime les sermons du père Massillon? Ils m'élèvent, ils m'enchantent, ils me ravissent.” *Correspondance des Oeuvres Complètes du marquis de Sade*, t. XII, Cercle du Livre précieux, 1966-1967, p.282.

와 같은 책을 출판사의 요구대로 써서 출판하거나,²⁷⁾ 극단의 단역 배우로 무대에 서서 생계를 꾸려야 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대혁명 이전과 이후의 작품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구원의 길이나 다름없는 작품을 남기기 위해 모든 정열을 바친 글쓰기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의 구미를 충족시키는 글쓰기 사이에는 질적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²⁸⁾ 대혁명 이후의 사드 작품에는 상업성이 질게 스며들어있는 만큼 독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사드는 대혁명의 소용돌이와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일련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검열의 날카로운 시선을 비껴가야 했다. 대혁명 정국 속에서 출판된 『알린느와 발쿠르』의 버전이 세 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대혁명 직전 집필된 원본, 1793년의 혁명 버전 그리고 1795년의 공화주의 버전을 말하는데 1793년 지루아르(Girouard)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기 전 혁명정부의 취향에 맞춰 많은 부분을 손질했고, 1795년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²⁹⁾ 1793년 12월 자신은 온건파(modérantisme)로 몰려 다시 수감되어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고, 출판업자 지루아르도 체포되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검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미 대혁명 직후 사드가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1795년 익명으로 출판된 『밀실에서나 하는 철학』도 이런 기회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³⁰⁾ 대혁명 이후 집필된 모든 작품들은 웅

27) 1791년 6월 12일 사드는 엑스의 지인 Reinaud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
 “On imprime actuellement un roman de moi, mais trop immoral pour être envoyé à un homme aussi sage, aussi pieux et aussi décent que vous. J'avais besoin d'argent, mon imprimeur me le demandait bien poivré, et je le lui ai fait capable d'empêcher le diable. On l'appelle 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 Brûlez-le et ne le lisez point si par hasard il vous tombe sous la main. Je le renie (…).” Haisoo Chung, 앞의 학위논문 *Philosophie et Littérature chez Sade du Dialogue à Aline et Valcour*, pp.8-9에서 재인용.

28)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의 연구도 대혁명 이전의 작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9) Michel Delon, “Notice” d’Aline et Valcour, Oeuvre I, Gallimard, 1990, p.1199 참조.

30) 정해수, 「『밀실에서나 하는 철학』에 삽입된 팸플릿, 《프랑스 사람들이여, 공화주의자가 되려면 좀 더 노력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국프랑스학논집』,

프레가 정확하게 정의한 표현처럼 “상황적 텍스트”³¹⁾이며, 따라서 사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작품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대혁명 기 프랑스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겠는가! 대혁명 이후 사드의 삶과 작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V. 결론

존 필립스는 “사드의 작품에서 보이는 특징 한 가지는 수많은 서로 다른 페르소나의 음성과 단 한 명의 저자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몇 안 되는 연구자이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사드의 편지나 일기와 같이 극히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글조차도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가 판단하기에 사드는 언제나 자신을 허구화하는 성향, 즉 배우이자 극작가로서 “상충하기까지 하는 상이한 저술가 페르소나 두 가지”를 재현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진짜 사드를 밝혀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³²⁾ 필립스는 페르소나 두 가지를 통해 사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사드가 훨씬 더 복잡한 글쓰기를 한 작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작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음성(polyphonie), 등장인물들의 모순된 철학적 담론 그리고

제82집, 2013.

- 31) 옹프레는 대혁명 이후의 사드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 “... 사드가 이러한 상황적 텍스트(테르미도르 이후 수정되고 『알린과 발쿠르』가 나중에 그렇게 되듯 민주화되고 혁명된)를 가지고 민중의 축제에서 공화주의적 미덕, 시민종교, 재능들의 우대주의, 법정의 이타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혁명가들로부터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걸 잊는 것이 된다. 또한 그는 편지 속에서 혁명 신념을 고백하는 척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당국에 의해 편지가 뜯겨 읽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크 지부의 지붕 아래 취해진 입장표시 전체가 그렇듯 역사적 맥락 가운데 밀접하게 기재되고 있는 이 텍스트는 단 하나의 목표, 요컨대 단두대형을 받을 위험이 큰 후작의 목숨을 구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정해수, 위의 논문, 186쪽에서 재인용. 원래 출처는 미셸 옹프레, 『계몽주의 시대와 급진철학자들』, 남수인 옮김, 고양시, 인간사랑, 2010, 315쪽.

- 32) 존 필립스, 앞의 책, 28-29쪽.

후작의 작품이 상황적 텍스트라는 사실 등은 텍스트를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주요 요인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드 작품의 극히 복잡다단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연구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는 비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드에게서 현대정신을 발견하고 후작을 “성(聖) 사드, 작가이자 순교자”로 추앙한 이래 저명한 많은 전문 비평가들도 초현실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그의 현대성을 찾는데 골몰했다.³³⁾ 언급한 에릭 마르티도 20세기 전반에 걸쳐 사드에게서 전문 비평가들이 찾은 의미는 ‘현대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의미에서 20세기 초부터 21세기 초까지 사드 전문 비평가들은 사드의 ‘현대성’이란 늪에 빠져 모두 허우적거렸던 것은 아닐까?

르브룅이 동시대 전문 비평가들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녀에 의하면 그들이야말로 “사드를 밀도 끝도 없는 심리학 적, 문학적, 의학적, 정신분석학적, 언어학적 분석 틀에 가둬넣는 우를 범했으며 7-80년대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비평적 작업이 사드를 다른 작가들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을 방해했다.”³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몇 가지 사드 작품의 특성들, 사드에 관한 기초 자료집, 서간집, 사실에 기초한 평전 등을 도외시하고 후작과 그의 작품을 자신들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만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이 결여된 주장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21세기 사드를 접하는 독자들은 이런 억지주장을 하는 비평가의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1990년 이후 그동안 이루어진 사드 연구의 폐해를 간파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드를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자 그룹의 관심의 대상은 더 이상 ‘현대성’, ‘절대 자유’, ‘새디즘’, ‘순교자’, ‘혁명과 전복’, ‘에로티시즘’, ‘악의 세계’ 등처럼

33) 인용부호로 강조한 문구는 브리켈리의 저서에서 쓴 소제목 가운데 하나임. 한편 1923년 데스노스(Robert Desnos)는 1923년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사드의 작품이 과연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현대성을 갖추고 있나’를 분석하여 ”사드 후작의 작품은 현대정신의 철학적이면서 구체적 형상을 갖춘 최초의 발현이다“라고 씀으로써 사드에 대한 기본원리를 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 폴 브리켈리, 『불멸의 에로티스트 사드』, 성귀수 옮김, 해냄, 2006, 381쪽 참조.

34) 정해수, 앞의 논문 「사드 연구 50년」, 43쪽에서 재인용.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여 역측으로 구성한 주제들이 아니다. 이들은 작가를 그가 창조한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이전 비평가들의 관점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드를 역사 속에서 또는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야말로 사드를 정확히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후의 연구는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2.
- 미셸 옹프레, 『계몽주의 시대와 급진철학자들』, 남수인 역, 인간사랑, 2010.
사드, 『사드 전집 I - 사제와 죽어가는 자의 대화』, 성귀수 옮김, 위크롬 프
레스, 2014
- 정해수, 「Dialogue entre un prêtre et un moribond에 나타난 사드의 글쓰기의
始原 : 대화인가 투쟁인가?」, 『프랑스문화연구』 제1집, 1997.
_____, 「사드의 철학적 담론과 야심」, 『프랑스문화연구』 제3집, 1999.
_____, 「『밀실에서나 하는 철학』에 삽입된 팸플릿, 《프랑스 사람들이여,
공화주의자가 되려면 좀 더 노력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
국프랑스학논집』, 제82집, 2013.
_____, 「사드 연구 50년」,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00집, 2017.
- 존 필립스, 『How to read 사드』, 김병화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8.
장 폴 브리젤리, 『불멸의 에로티스트 사드』, 성귀수 옮김, 해냄, 2006.
- Bakhtine, Mikhaïl,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1975), traduit du russe
par Daria Olivier, Gallimard, coll. Tel, 1978.
- Brix, Michel, *Sade et les Férons, Jaignes, La Chasse au Snark*, 2003.
_____, “Sade est-il un philosophe des Lumières ?”, *Trans/Form/Ação*,
30:2, 2007.
- Chung, Haisoo, *Philosophie et littérature chez Sade du Dialogue à Aline et
Valcour*, thèse Univ. de Tours, 1997,
- Delon, Michel, “La copie sadienne”, *Littérature*, n°69, février 1988.
_____, “Aline et Valcour, ou l'ambition philosophique”, *Les Cahiers
des Para-littératures*, n° 4, 1992, pp. 53-59.
_____, “Introduction”, *Sade, Oeuvres I*, coll. Pléiade, Gallimard,
1990.

- _____, *Les Vies de Sade*, 2 vol. Textuel, 2007.
- Deprun, Jean, “Sade et le rationalisme des Lumières”, *Raison présente*, n°3, mai-juillet, 1967.
- _____, “Quand Sade réécrit Fréret, Voltaire et d'Holbach”, *Romans et Lumières au XVIIIe siècle*, Editions Sociales, 1970/reprise in *Obliques* n° 12-13, 1977.
- _____, “Sade et l'abbé Bergier”, *Raison présente*, 67, juillet-septembre, 1983.
- _____, “Sade philosophe”, *Sade, Oeuvres I*, coll. Pléiade, Gallimard, 1990.
- Didier, Béatrice, “Sade dramaturge de ses ‘cerceri’”, N.R.F., n°216, 1970.
- Goulemot, Jean M., “Divin Marquis ou objet d'étude?”, *Revue des Sciences humaines*, 1966.
- _____, “Introduction” d'*Aline et Valcour*, coll. Livre de Poch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4
- Hashimoto, Itaru(橋本 到), 浮かび上がる新たなサドの相貌—サド批評の動向と展望, 岩波書店 季刊「文学」5(4) 61-72, Oct 1994.
- Hénaff, Marcel, *Sade, L'Invention du corps libertin*, PUF, 1978.
- Jeangène Vilmer, Jean-Baptiste, *Sade moraliste*, Genève, Droz, 2005,
- Jimenez, Dolores, “Sade et le roman épistolaire : l'exemple d'Aline et Valcour”, *Narrativa francesa en el siglo XVIII*, Universidad nacional de Madrid, 1988.
- Laborde, Alice M., *La bibliothèque du marquis de Sade*, Genève, Slatkine, 1991.
- Lacombe, Roger G., *Sade et ses masques*, Payot, 1974.
- Lever, Maurice, *SADE*, Fayard, 1991.
- Marty, Éric, *Pourquoi le XXe siècle a-t-il pris Sade au sérieux?*, Seuil, 2011.
- Onfray, Michel, *La passion de la Méchanceté*, Éd. Autrement, 2014.
- Pauvert, Jean-Jacques, *Sade vivant I*, Laffont, 1986.
- _____, *Sade vivant II*, Laffont, 1989.

Pfersmann, Andreas, “L’ironie romantique chez Sade”, *Sade écrire la crise*,
Colloque de cerisy, Belfond, 1983.

Sade, *Correspondance des Oeuvres Complètes du marquis de Sade*, t. XII,
Cercle du Livre précieux, 1966-1967.

❖ ABSTRACT

Certain characteristics of Sade's work that
no one wants to allude

Chung, Haisoo

This was originally from the preceding research, '50 years of Sade's Studies,' and we have submitted this thesis by reorganizing it carefully in a paper format. To understand Sade, we had to go through and consider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the critics were reluctant to reveal. In other words, the revelation of the polyphony throughout the work, the contradictory philosophical discourse of the characters, and the fact that Marquis' work is a situational text are factors to consider in this case. People have studied Sade disregarding these characteristics for a long period of time. Especially those groups of professional critics, has taken only a certain amount of Sade's work for their theoretical justification. As a result, the work of Sade became unreadable.

Fortunately, researchers since 1990 have refused to continue the habitual of regarding Sade in the same light as his characters, and have instead focused on the process of researching the fundamentals based on the correct data, history and ideological context. We think that the research of those who have caused reverberations to the academic world would be the key point to the Studies of Sade in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18th century French literature, Sade, Polyphony of Sade's work,
Contradiction of Sade, Situational text, ambiguity of Sade

■ 논문접수일 : 2018. 02. 10

■ 심사완료일 : 2018. 02. 28

■ 게재확정일 : 2018. 03. 01

